



## 2 치조열의 일차성 골이식술

조영철\*, 성일용, 손재희, 김종렬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치조골 파열은 전체 구개열 환자의 약 75%에서 발생하며 구개부 누공이나 상악골 성장장애, 치아 맹출장애가 나타난다. 치조골 파열 부위의 골이식은 일반적으로 그 실시시기에 따라 출생후 2세 미만에 시행하는 일차성 골이식술(Primary alveolar bone grafting), 2~5세 사이에 시행하는 초기 이차성 골이식술(Early secondary bone grafting), 그리고 5~16세 사이에 시행하는 이차성 골이식술(Secondary bone grafting), 그리고 16세 이후에 시행하는 만기 골이식술(Late bone grafting)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일차성 골이식술은 1950년대 중반 Schmid 등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나, 많은 학자들이 상악과 중안모의 성장장애, 치아 맹출지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부터 Rosenstein 등은 구순 구개열을 가진 신생아에서 입술 수술전에 상악궁에 Plate를 장착시켜 치조골의 협착을 방지하고 입술 수술후에, 구개 수술전에 치조골의 결손부에 자가능골을 이용한 골이식을 하는 일련의 술식을 시행하여 기능과 외모를 조기에 회복해 주고 정상적인 성장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한 이래, 구순 구개열 환자의 조기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일차성 골이식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본 교실에서는 구순 구개열 환자의 자가능골을 이용한 일차성 골이식술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만족할만한 경과를 보여 소개하는 바이다.

### Primary Alveolar Bone Graft

Yeong-Cheol Cho\*, Il-Yong Sung, Jae-Hee Son, Jong-Ryoul Kim

Dep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About 75% patient of cleft palate have alveolar clefts and palatal fistula, retarded maxillary growth, delayed tooth eruption. The chronologic nomenclature used in alveolar bone grafting are primary alveolar bone grafting(0~2yrs), early secondary(2~5yrs), secondary(5~16yrs), late bone grafting(older than 16yrs). Although these surgial objective are generally accepted, considerable controversies still exist about timing of bone graft. The main objective in primary alveolar grafting is to prevent maxillary segmental collapse and arch distortion. Furthermore, early obliteration of oronasal fistulas at the alveolar level promotes improved dental and oral hygiene and speech development

We have experienced 3 cases of primary alveolar bone graft and they showed satisfactory results clinically in terms of growth up to now.